## 광주문화신협, 13년째 '나눔의 선순환' 실천



## 본보 2025 캠페인 '아름다운 사회 함께 만들어요'

15기 인재육성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고교생 23명 선발…대학 졸업까지 지원 누적 장학금 21억…다양한 사회공헌 앞장

광주문화신협이 13년째 이어온 인재육성 장 학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하 고있다.

광주문화신협 복지장학재단은 지난달 30일 위더스 그랜드볼룸홀에서 '제15기 인재육성 장 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올해 선발된 23명의 고등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들은 광주 북구와 광산 구의 인문·예체능계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으 로 고교 재학 중 연간 100만원, 대학 입학 후에는 졸업 시까지 연간 300만원의 장학금을 수령한다. 6년간 1인당 총 1천400만원 이상을 지원 받는 셈 이다. 이 중 일부는 생활비 월 30만원도 별도로 지원 받는다.

장학생으로 선정된 정광고 2학년 서시영 학생 은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장학생에 선정됐는데 앞으로 대학교 4학년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 다고 하니 큰 힘이 된다"며 "장학금은 학원비나 교재비로 쓰거나 모아뒀다가 나중에 요긴하게 쓰고싶다"고말했다.

광주문화신협은 매년 당기순이익의 약 10%를 장학금 등 사회공헌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며 2012 년 복지장학재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233명의 학생에게 약 21억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특히 지난 2021년 공동유대지역이 북구에서 광산구까지 확대되면서 수혜 대상이 인문계 고 등학생뿐 아니라 예체능 계열로도 확장됐다. 광 주문화신협은 장학생 선발 외에도 김장 봉사, 연 탄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병행하며 지 역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고영철 광주문화신협 복지장학재단 이사장은 "좋은 사람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 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이라며 "숲이 서 로의 가지를 침범하지 않고 빛을 나누듯 우리 사 회도 존중과 나눔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학생들도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되 주변을 돌아보고 더불어 성장하는 지혜로운 리더 로자라나길 바란다"며 "여러분은 지역의 희망이 자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라고 격려했다.



광주문화신협 복지장학재단 제15기 인재육성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지난달 30일 위더스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려 고영철 광주문화신협 복지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올해 선발 된 장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 기자

그는 또 "취업 후 자발적으로 기부 의사를 밝 히는 졸업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는 재 단이 진정성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신뢰 받고 있 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장학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를 이끄는 인재를 키우는 일"이라며 "신 협이 20년, 30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한다면 지역 사회와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문화신협은 지난 1993년 창립 이후 3

2년 연속 흑자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2025년 4월 말 기준 총 자산 1조6천511억원을 기록, 전국 신 협 중 자산 규모 2위에 올랐으며 지역의 사회적 금융기관으로서 공동체와의 상생을 실현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정은솔기자

## 광주은행, 보이스피싱 사전 피해 예방 성과 잇따라

광주 송정 · 서울 여의도 등 수억 피해 막아 예리한판단・신속대응…올해만50억보호

광주은행은 최근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공로로 광주 송정지점과 서울 여 의도지점 직원이 각각 광주광산경찰서와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고 1 일 밝혔다. 〈사진〉

먼저 광주 송정지점 가계대출 담당 직원은 담 보대출을 신청한 고객이 상담 중 휴대전화로 누 군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을 수 상히 여겨 대출 자금의 사용 목적을 재차 확인 했다. 이에 고객은 '리모델링 자금'이라 답했지 만 대출 심사 과정에서 타행 대출이 연달아 실 행된 정황이 드러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경 찰에 신고했다.

종 앱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최근 유 행하는 수법으로 '카드 배송 오류' 등을 사유로 링크를 전송해 설치를 유도한 뒤 설치된 앱을



통해 통화를 가로채고 휴대전화를 원격 조작할

이로 인해 고객은 경찰이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는 상황이었으며 실 제로 이미 다른 은행에서 대출 받은 수천만원을 사기범에게 전달한 상태였다. 광주은행 직원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고객은 추가로 약 2억5천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출동한 경찰은 고객의 휴대전화에서 원격조 다. 비대면으로 대출을 실행한 뒤 OTP 재발급과 에 담당 직원은 이상 징후를 민감하게 포착했다.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 여의도지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 이체 한도 증액을 요청한 고객의 불안정한 태도

의도용 혐의로 약식 수사를 받기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검찰을 사칭한 사기범에 게 돈을 이체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불법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한다며 피 해자에게 대출을 유도하고 '비밀 수사 중'이라 는 명목으로 특정 숙소에 머무르게 하며 외부와 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최근 유행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광주은행 직원의 침착한 상 황 판단 덕분에 약 7천900만원 규모의 피해를 사 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한편 광주은행은 '24시간x365일 모니터링 체 계'를 가동해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이상 금융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약 39억원, 2025년 5월까 지는 약 19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 에 차단하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범죄로부터 지켜냈다.

김은호 광주은행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 자(CCO)는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금융자 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즉시 지급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한 결과 명 다"고 말했다. /정은솔기자

+

## 전남농협, 아침밥 먹기 캠페인 지속 전개

목포마리아회고서 조식 나눔

농협전남본부는 1일 "최근 전남도와 함께 목 포마리아회고등학교에서 '청소년 등굣길 아침 밥 먹기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광일 농협중앙회 전남본부 장, 류종필 NH농협은행 전남본부장, 조자옥 전 남도 양곡유통팀장, 김기대 목포마리아회고 교 장등20여명이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른 아침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전남 대표품종인 '새청무쌀'로 만든 삼각김밥 과 국산콩으로 만든 두유 등 간편 조식을 나눠 주며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4월 3차례 실시한 행사를



이어가면서 아침밥 먹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는 있으나 실천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쌀의 영양학적 효능을 홍보해 쌀밥 중심의 식습관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태호기자





